

한올타리

2020 SPRING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0 No 2 2020.05.17

편집: 홍보위원회

한올타리 편집팀 김한나 배광현 이재혁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목사

권두언

Coronacation

요즘 zoom으로 신임 제직 교육을 실시 중인데 어느 집사님이 요즘을 ‘Coronacation’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Vacation은 vacate 곧 비우는 시간 곧 집을 비우기도 하지만 그동안 삶 속에 쌓여 있던 것을 비우는 시간이겠죠. 그러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을 비우고 어딘가 가 있는 것일줄 압니다.

그러면 ‘coronacation’은 어떤 시간일까요? ‘corona’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는 바로 왕관에서 나오는 빛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왕관을 쓴 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가득찬 것으로 인해서 왕관의 빛을 잃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crown(왕관)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왕관을 쓴 자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파괴하였고 또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만드시고 왕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Coronacation은 이를 위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요?

이영길 목사

당회 소식

지난 3월 정기 당회에서는 Covid-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Task Force를 만들고, 그들의 지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경로, 예방수칙 등 전문가를 통해 지침서를 만들고 교육하며 상황에 따라 지침을 계속 Update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하여 이 Task Force에서는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 예방수칙 등의 지침서와 이 상황에 파생된 교우분들의 안전 및 가정, 직장, 사업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가이드를 여러 매체(교회 web page 등)를 통해 안내했고 계속 Update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15일 임시당회를 소집, 온라인 예배전환을 가결하고 예배를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예배형태와 순서 등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을 맡아 진행, 온라인 헌금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곧바로 주정부의 “Stay at Home” 발표와 더불어 많은 인원의 집회가 불가하여 3월 22일부터 온라인예배를 실시하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본 당회는 온라인 미팅(Zoom Meeting)을 필요에 따라 (2주 1회)열기로 하고 지금까지 (3월 22, 29일, 4월 19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예배의 내용과 준비와 진행을 점검하고 교회 재정 및 Fund Task force가 결성되어 이 어려운 때를 위해 정부와 교회총회, 노회 등에서 마련된 FUND, GRANT,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또한 섬김 Task force가 결성되어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신앙생활 등에 다각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ZOOM MEETING APP.을 교회계정으로 마련하여 구역 및 성경공부 그룹들의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섬김TF에서 돕고 있습니다. 위 모든 세부사항들은 각 Task Force나 위원회 집사회 등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10일 당회에서는 올해 계획되었던 국내, 해외선교 파송과, 전교인 여름 수양회, 자선음악회, 어머니주일 찬양제들을 Covid-19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

- Covid-19 비상상황 Task Force: 당회 서기,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예배예술팀위원회, 집사회장.
- 온라인예배 TF: 예배예술팀위원회, 교육1부위원회, 홍보위원회, 집사회장, 모든 목회자.
- 재정 및 Fund TF: 재정위원회, 교육2부위원회, 기획위원회, 이사회.
- 섬김 TF: 정.평.환.위원회, 교인 2부 위원회, 기획위원회, 집사회장.

당회서기 장양술 장로

예배예술 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COVID-19)에 대응하여 메사추세츠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회가 속한 브루클라인 타운도 공립학교의 임시 휴교를 하는 가운데, 본 교회는 임시당회 (3월 15일)를 통해 교회의 모든 in person 모임을 취소하고,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함에 따라, 3월 22일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예배형식에 맞추어 온 교우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 금요일예배 (4월 10일)와 부활주일예배 (4월 12일)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특히, 부활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성만찬/애찬식을 진행했습니다.

1. 2020년 3월 14일 (토요일)에 계획된 제직수련회는 취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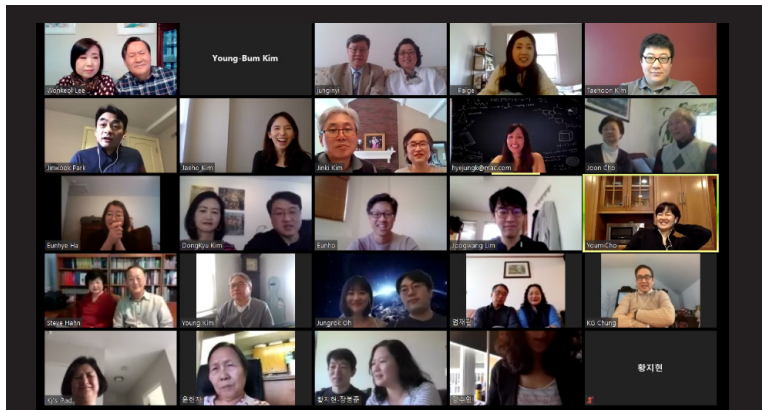
2. 실시간 온라인 예배 전환: 3월 15일 임시당회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예배 Task force (박신영 장로, 강상철 장로, 김한나 장로, 장양술 장로, 최학수 집사, 고문 - 이영길 목사,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를 구성하여 당일 모임을 갖고 온라인예배의 형식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Task force는 삼세대가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전 9시에 1회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유년주일학교, 유스그룹, 그리고 성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구성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표기도 - 유스그룹 대표; 영어성경봉독 - 주일학교학생; 봉헌기도 - 장로 대표; 한국어 성경봉독 - 집사대표). 찬양대와 찬양팀은 대표자들의 녹음파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년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을 위한 영어 설교 (김수영 목사)와 성인을 위한 한국어 설교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예배때 본당에서 참여하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예배순서를 맡은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영상 혹은 in-person으로 참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5월부터 예배현장에 참여치 못하는 교인들간에 화상으로나마 교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예배는 광고 시간을 활용해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Stay-at-home 기간 주1회 드러지는 온라인예배의 한계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르호봇 이야기 (이영길 목사)'가 5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3. 실시간 온라인예배: 3월22일부터 드러진 실시간 온라인예배는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몇차례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하여, 온 교우들의 참여하는 은혜로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찬양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찬양곡을 선정하고 직접 찬양팀 멤버로 참여케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매주 현장에서 수고하는 반주자와 찬양 녹음으로 참여하는 지휘자/솔로이스트는 물론 부활주일에는 찬양대원들이 Zoom모임을 이용해 함께 찬양을 녹음하여 참여 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러짐에 따라, 예배 슬라이드 준비작업 (슬라이드 수 & 파일 사이즈)이 크게 늘어났는데, 하은혜 집사의 수고로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방송팀 (구용한 집사, 김영돈 집사, 이석원 집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예배 형식과 변화에 잘 적응하며 매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네트워크와 방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정재원 집사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한 주일 실시간 예배를 위해 최학수 집사가 예배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4. 성금요일 예배: 찬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음악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윤경문 목사와 이요한 목사, 박진욱 집사의 주도로 '묵상, 기도와 찬양으로 드러지는 성 금요일 예배'로 형식을 바꾸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러졌습니다. 여러 부서가 참여한 평화의 인사와 주일학교/상록기도회의 영상기도를 통해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5. 방송시스템 업그레이드 (Phase 2): 정재원 집사와 방송실팀 (구용한/김영돈/이석원 집사), 그리고 집사회 (최학수/정광근 집사)의 수고로 방송실에서 본당 뒷편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본당 뒷편에 방송용 카메라와 PT control robotic arm 설치, 그리고 방송실에 원격 카메라 조정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방송용 영상시스템으로 예배 참여자들은 정면에서 촬영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영상시스템의 설치와 운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사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 헌물해 주신 지난 9월에 임직하신 제직들 (신임 안수집사/권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신영 장로

섬김 Taskforce Team

이 어려운 시간 모든 분들께 영육간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문안드립니다.

이번 COVID-19 사태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당장 교회 안의 가장 큰 변화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하고 교회의 많은 모임을 온라인 미팅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 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팎의 변화들로 인해 이영길 목사님의 건의와 당회의 결정으로 섬김TF팀이 만들어지고 여러 위원회와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과 한인사회의 분들, 더 넓게는 이 지역 사회 분들을 돕고자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사역 등을 찾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상록기도회원분들을 중심으로 전화와 여러가지 다른 연락 방법을 통해 한분 한분의 안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예배와 Zoom meeting 등을 설치 이용하는 방법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아보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식료품 구입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지 또는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기도제목이 있으신지 등을 알아보고 도움을 드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청년1, 2부와 집사회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상록회 분들이 계신 중앙2구역이 Zoom meeting을 이용해 구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고 여러 분들에게 전화,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연결되는 작은 결실들을 맺고 있습니다.

섬김사역팀을 통한 다른 사역으로는 이번에 여러 다른 형태로 광고가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꽃소리 핫라인(FlowerSori Hotline)”으로 1-888-520-0539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한국어와 영어로 **오늘의 성경 구절 듣기, 오늘의 조크, 오늘의 훈훈한 이야기, 오늘의 초간단 요리** 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역은 교육 2부위원회의 청년 1, 2부원들이 이렇게 서로서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접촉이 어려우신 많은 분들께 대화의 창구가 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 졌으며,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들을 모두 청년들이 감당하여 지금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분들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이야기나 정보 혹은 나누고 싶으신 미담이 있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부서에서 많은 다른 섬김 사역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에 한번 소개되었던 해바라기 주일학교의 의료 종사자 분들께 보내는 카드, 편지,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료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최전선에서 환자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모든 의료 종사자 분들과 각기 다른 업종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시는 분들과 이 힘든 시간을 이겨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 모두를 위해 계속 기도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분들께 주님의 지혜와 용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통해 본 우리교회의 사랑: 프로세스들의 부재와 단절을 메꾸어 주는 사랑하는 마음

3월 13일 내려진 재난 선포 이후 현재까지 두 달이 조금 못되는 기간 동안에 아마도 지난 약 반세기동안의 삶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 필자도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에 제법 많은 부분을 지낸 것 같다) 단기간에 가장 많은 것들에 대한 단절적 변화를 경험한 것 같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아마도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일 예배는 나의 예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 도착하여 맞아 주시는 예배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안부를 묻는 서로의 인사, 찬양과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과의 대화, 각자가 속한 다양한 모임을 통한 친교 등등.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의 위생과 청결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고, 부엌에서 각종 모임을 위해 준비하는 음식의 손길과,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경공부 인도, 방송실/통역, 유초등부 유스그룹 청년부를 섬기시는 분들, 다양한 선교회의 활동 등등 모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한 순간에 모두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 나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오히려 예배는, 온라인 예배나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QT를 통해 지속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교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에 없었던 활동을 제안하고 그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예배를 지원하는 많은 봉사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마음이 생각이 되어지고, 생각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 놀라운 일들이다.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 생각은 있지만 혼자 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이 태반이다. 협력하려고 노력해보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일들도 얼마나 많은가. 제한된 상황에서 생필품 쇼핑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유, 의료일선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책

임을 다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어린아이들의 마음, 모두의 어두어진 마음에 웃음을 전달하고 도움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청년들의 혁신, 이런 상황에서도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전달하는 봉사 등등, 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보기술의 도움으로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 한 주일, 우리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 네 곳의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보았다. 모두 은혜로운 예배였지만, 우리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3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는 예배, 영어와 모국어 말씀과 찬양이 공존하는 예배 등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과 제직들의 사랑이 담긴 예배라는 것을 말이다.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화상미팅을 통해, 과거의 구역우들과도 함께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과, 이런 상황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성경공부 등, 위기의 상황에 피어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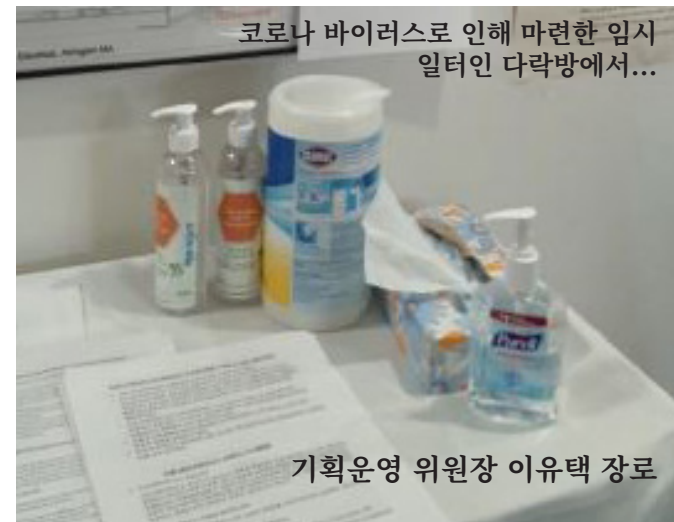
우리가 모두 알 듯이 미국은 세계최고의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거기에 더하여, 각종 분야에서 매우 효과적인 프로세스와 매뉴얼, 계약 등 빈틈이 없어 보이는 문서와 약속들로 가득 찬 나라이다. 그런데 최첨단 제품도 아닌 마스크와 손살균제가 없고, 인공지능 로봇의사를 만드는 나라에서 비교적 간단한 산소호흡기가 모자라 위급한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기도 하였다. 명확한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매뉴얼도 있었지만, 재난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우리 교회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각각 흩어져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프로세스들을 연결시키는 활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열거할 수 없다. 필자

는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많은 세월에 프로세스를 공부하고 기업들과 일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위기 상황을 통해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의 놀라운 활동들을 통해, 가장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프로세스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가 우리 교회의 구제 활동에 관한 원고 문의 받고, 원고를 쓰면서 특정 교우의 성명이나 특정 부서의 명칭을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면서 원고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주고, 또 필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양한 곳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사랑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말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은 아마도 현재의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새로운 '우리'들과 함께 그 선한 영향력은 미칠 것을 확신한다.

몇 일 전 한 구역원로부터 받은 작은 꽃 한 다발은 감동과 함께, 희망보다는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 찬 우리들이 생활에 봄 내음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향기를 선사해 주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꽃 한 다발의 사랑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위해 또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 협력하고 헌신하시는 교우들과, 제직,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모두의 사랑하는 마음에 행복을 느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련한 임시 일터인 다락방에서...

기획운영 위원장 이유택 장로

홍보위원회



1. 2020년도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고 재의수요일(2/26)로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동안 묵상집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간증과 은혜의 글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와 회개, 섬김, 간구의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 3월중 교회 도서실 정리를 계획하였으나 COVID-19 사태로 연기되었습니다. 좀더 나은 도서실로 단장하려 계획 중입니다. 도서실의 서적은 종교, 교육, 설교집 등의 문서로만 구성하려 합니다.

3. COVID-19으로 인한 예배 방식 변화와 대처하는 도움 글, 정보 사항 등을 교우님들과 긴밀히 나누기 위해 KCBoston.org 사이트를 약간 변경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nglish Facebook Contact Us Log In [온라인 예배 Worship Online](#) [온라인 헌금 Offering Online](#) [자료모음 Resources](#) [회향의 소리샘](#)

ABOUT WORSHIP NEWCOMER EDUCATION MISSION COMMUNITY RESOURCES FACILITIES ECCKCB KCB EVENTS

Resource [르호봇 이야기 동영상](#)

» 회향의 소리샘

» 르호봇 이야기 동영상

Resource [꽃.소.리 \(FlowerSori\) Hotline](#)

» 회향의 소리샘

» 르호봇 이야기 동영상

» 꽃.소.리 (FlowerSori) Hotline

Resource [회향의 소리샘](#)

» 르호봇 이야기 동영상

» 꽃.소.리 (FlowerSori) Hotline

» 찬양 듣기

No.	Title	Writer	Date
11	마스크 재사용 방법 How to reuse masks	webmaster	2020.05.07
10	꽃.소.리 (FlowerSori) Hotlines 안내	webmaster	2020.05.03
9	마스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마스크 별 사용법 및 주의사항	webmaster	2020.04.27
8	영성 기도: Covid-19 시대의 한 기도 영성	webmaster	2020.04.20
7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Relief Fund 안내	webmaster	2020.04.13
6	설립 수당 신청 관련 정보	webmaster	2020.04.02
5	실업 지원: CARES Act (Paycheck Protect Program) and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and Loans Advance)	webmaster	2020.04.02
4	긴급 자금 신청 자료-Economic Injury Disaster Advance Loan	webmaster	2020.04.02
3	코로나 바이러스-정부 지원 자료 summary: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	webmaster	2020.04.02
2	COVID-19 : 불확실한 현 시기에 대한 기도문(PCUSA 공동 총회장)	webmaster	2020.04.01

Resource [자료실](#)

» 회향의 소리샘

» 르호봇 이야기 동영상

» 꽃.소.리 (FlowerSori) Hotline

» 찬양 듣기

» 자료모음



4. 지난 4월 3일부터 실시한 “Coronavirus Crisis: ‘Clap Because We Care’ For Essential Workers In Massachusetts”에 본 교회가 동참하였습니다. 부지형을 비롯한 청년부 교우들의 섬김으로 포스터가 제작되어서 교회의 Community Center의 유리벽과 Parlor 유리창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매 금요일 오후 7시에 박수와 환호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시간에 동참합니다.

교육 3부 위원회

교우 여러분들 중 혹독한 6.25사변을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이 터널의 끝을 기다리며 터널 끝에서 빛과 함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3부는 7개반 (소그룹 6반, 강의식1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 나누는 시간은 못하고 있으나, 온라인 ZOOM이나 카톡 등으로 매주 말씀을 활발하게 나누고 있고 어려움도 기쁨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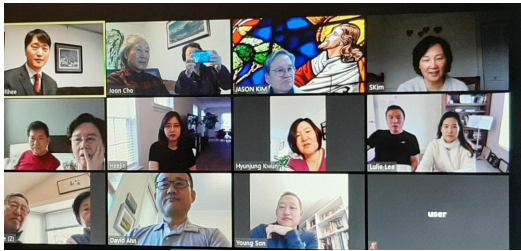
안드레반(인도자: 박신영 장로)은 매주 주일 ZOOM을 통해 많은 분들 15-16명 정도가 말씀 공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멀리 타주로 이사하신 김중연/주연상 장로님 부부 와 현재 한국에서 여행중인 원영옥 권사님도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반 (인도자: 이재익 집사)도 매주일 반원들과 ZOOM을 이용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시간도 1:30-2:00시간으로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 청년반(인도자: 한문수 장로)도 매주 1.5에서 2시간씩 서로 ZOOM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신 옛 교인 부부도 참여하여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나엘반(인도자: 김동숙 집사)은 말씀 공부 외에도 매월 김동숙 집사님과 김경희 권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보스톤에 어렵고 힘든 노숙자나 노동자의 쉼터인 셸터에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서빙하며 배우고 나누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의식 반(이요한목사)도 ZOOM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그리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는 성경 말씀이 그리워 새로이 조인하시는 분도 늘어나 많은 학생이 함께하고 있고, 공부 후에는 그동안의 생활들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간을 주님을 알아가는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우리들 앞의 모든 두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교인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빠른 시간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와 곧 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원장 방경남 장로

일상성 회복은?

아쉽다	그냥	별안간	online 교회예배!	가라 코로나야
보고픈 얼굴들	무심히	후안 코로라 괴물이 명령한다.	Skype, Zoom으로 성경공부!	오라 일상성아
보기만 해도	공기 마냥	50명, 25명, 10명 이하	격리된 사회를 더욱	이제는
마음 훈훈한 얼굴들	옆 집에서	집회 금지!	격리시키는 코로나 사탄	고마운 일상을 감사하리!
그때는 그걸 몰랐다.	늘 교회당에서	약수, hug 접촉 금지!	코로나 환난은 인내를	일상을 회복시킬 주님을
	마주하고 있었기에	14 days self-quarantine!	인내는 연단을	찬양하리 영원히!!!
		Social distancing!	연단은 소망 이름 믿는다.	
		Stay at home!		

김문소 은퇴장로
<3/25/2020>

집사회

2020년 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의 상황이 이곳 보스턴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당연시되었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소중한 존재를 잃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슬픔과 아픔도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올 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집사회에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봉사와 행사들은 당연하게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고 저희들은 잠시 망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전체에 방역과 소독작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 손이 닿는 곳은 모두 깨끗이 소독하고 청소했습니다. 약간의 걱정을 가지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교회로 왔지만 모두들 열심히 헌신적으로 청소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서로의 대화 속에서 감사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 14일에는 김동숙 집사님께서 봉사하시는 쉼터 음식 나눔봉사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고기, 잡채, 탕수육, 만두, 바베큐 치킨, 핫치킨 등의 메뉴로 총 120개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해서 노숙자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저희의 맘이 더 따뜻해지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집에 머물러야 하고 음식과 필수용품도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혼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예배가 오직 삶의 가장 큰 기쁨이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집사회는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와 청년 1,2부와 함께 이웃돕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카톡이나 줌미팅에 관련된 도움을 드려서 구역 모임과 성경공부모임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성경공부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저희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르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께 정부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은 이미 저희의 삶의 상당한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부족한 집사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은 늘 변함없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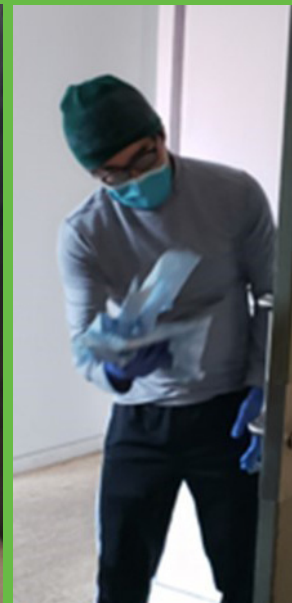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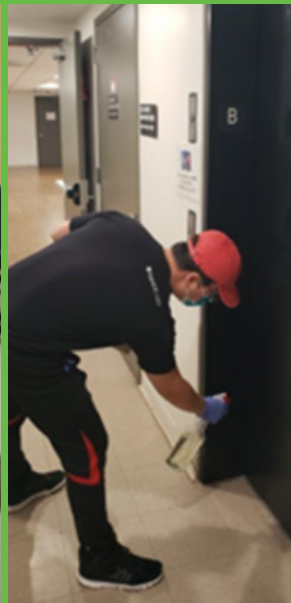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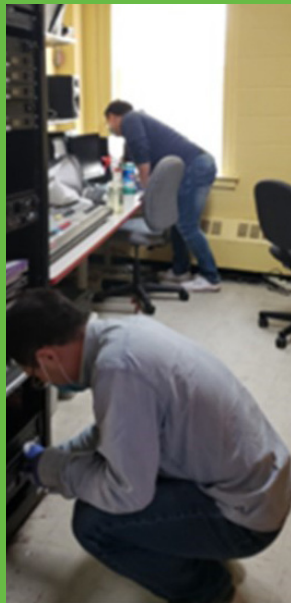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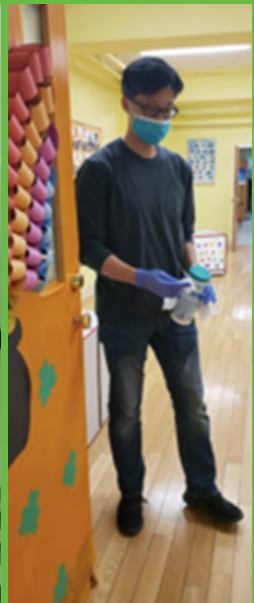


회장 최학수 집사
홍보부장 전은영 집사





보스톤 한인교회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방역 및 소독





1. 청소전 교육

-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태 및 전파되는 경로 및 사멸 방법 설명 (열, 산성, 염기성, detergent, alcohol, 자외선)
- 청소해야 할 장소 및 도구들 명확히 설명

1. 타액이 묻을 수 있는 곳들 전면적 소독 및 세척
2. 메탈로 된 도어 손잡이들 및 방송 장비 (마이크 등 타액이 묻어 있을 수 있는 장비들)
3. 책상 및 의자 등받이 (특히 뒤사람이 잡게 될 의자의 윗부분)
4. 주방 도구 (열이 가해지지 않는 주방도구 - 70도이상이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사멸)

2. 당일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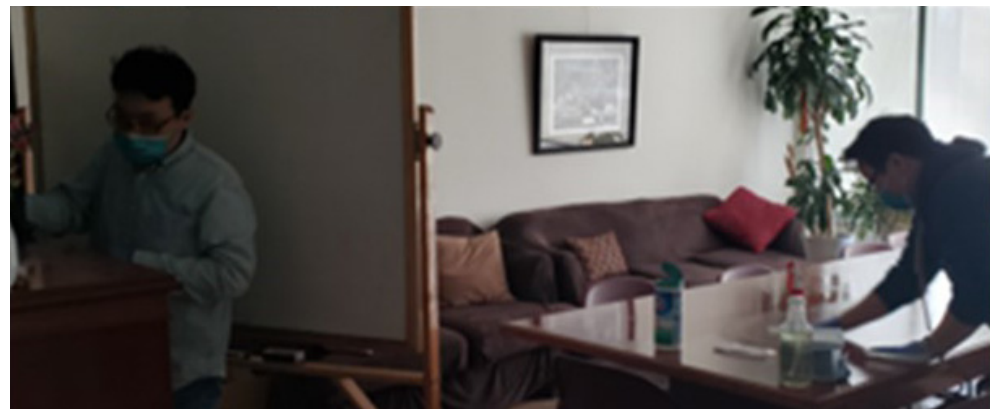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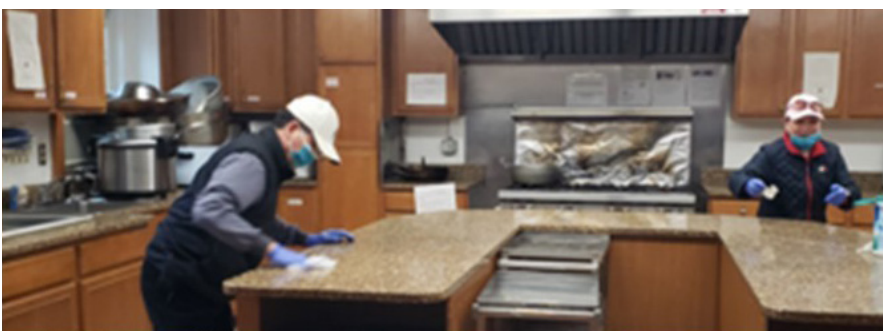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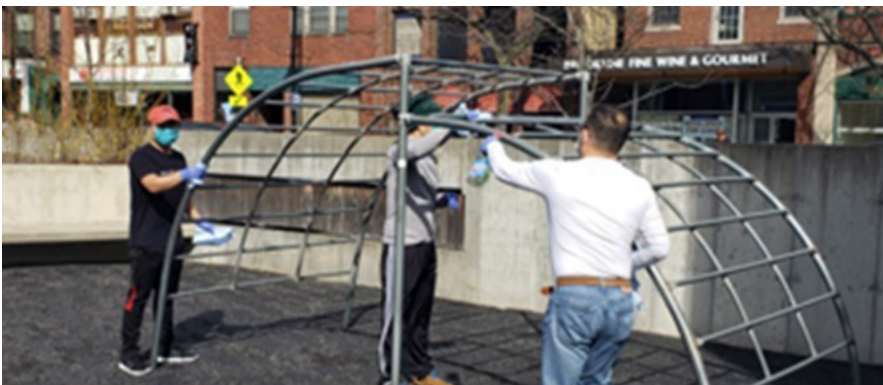
- 단계별 소독: Clorox wipe, 70% 알콜 용액 spray, detergent spray (SARS, H1N1등 사멸용)
- 0.05% 락스 용액 (바닥 청소용)
- 페이퍼 타올 (일회용), 전원 장갑 및 마스크 착용

3. 일정

- 14:00 펠로우쉽 홀 집결 ▶ 이문영 장로님 기도 ▶ 간단한 교육 / 청소구역 확인
 ▶ 조별로 나누어 청소 ▶ 15:00 중간점검, 인력재배치 ▶ 16:00 청소완료 (엄재관 장로님 기도)

4. 청소구역

교회내 모든 문, 본당, ECC, Youth Group chapel, 친교실, 팔러, 방송실, 계단, 승강기, 목사님 사무실, 부역 1층/지하, 놀이터, 지하 부청방, 찬양대 연습실, 지하 어린이 방, 지하 모든 책상 및 의자, 놀이터 기본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사람 손이 닿는 곳은 모두 깨끗이 소독 및 청소하였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저희가 청소한 장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헌신적으로 청소에 동참해주신 제직 여러분 및 보내주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바라기 유초등부

최근 두 달 간, 어린이들도 아주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던 학교를 가지 않고, 매일 보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며, 매 주일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 찬양, 성경공부도 온라인으로 대체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함께 몸을 부대끼고, 열심히 뛰어 놀며 깔깔 웃던 어린이들이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지루하겠지만, 해바라기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낯선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김수영 목사

온라인 주일 예배

매 주일 아침 9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삼세대 주일 예배는 이제, 새로운 일상의 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눈만 깜빡깜빡하며 서 있던 찬송가 순서에도, 이제는 가사와 상관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높여 따라 부릅니다. 아빠와 엄마가 일어나고 앉는 순서를 따라서 몇 번 하다 보니, 예배 순서도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빨리 교회에 가서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했던 성찬식/애찬식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섬김의 카드 쓰기

유초등부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부활절을 맞이하여 카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심을 알게 되어, 작은 손, 땀땀한 글씨로 예쁜 카드를 직접 만들고 색칠하여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섬김의 공동체라는 올해의 표어를 따라서, '섬김의 카드'라고 이름 지었던 이 사역은 쓰는 어린이들에게도 뿌듯한 섬김이 되었지만, 받으시는 분들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Zoom 모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Zoom으로 함께 모여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반별로 모여 성경공부도 합니다. Zoom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루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까지 모든 어린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보스톤 한인교회 온 교우님들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연동화

교단 총회 여성회(Presbyterian Women in PCUSA)는 5월 4-10일을 “Children’s Book Week”, “PW Together in Action Days for Children’s Literacy” 주간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책 읽어주기”를 동영상으로 찍어 youtube에 올려 많은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영어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영어 외에도 Spanish와 Korean 으로도 함께 추진했고, 해바라기 주일학교의 학부모들이 한국어 동화 읽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동화책을 안은신 집사(신나는 날, What a fun day), 박미정 집사(노아의 방주, Noah’s ark), 박해인 집사(넉점반, Four and half) 3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youtube에서 Presbyterian Women에 들어가시면 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PresbyterianWomen>

I. 정기 모임

1. 금요 예배: 예배를 In-person으로 모이지 않기 시작하면서(3/20), 금요 예배를zoom으로 갖고 있습니다.
 - 7:45 PM 부터 Check In time을 갖고, 한 주간 무사히 지냈는지를 돌아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8:00 PM- 예배: 찬양- 기도- 성경봉독(한글/영어)- 말씀- 기도회- 축도 후 광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 주일 성경공부: 매주 온라인 예배 후 10:30 AM부터 모여서 줌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모임으로 시작하였다가, 두 조 (리더:정운원, 이주영) 나뉘어 성경공부를 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리더 성경공부 준비 모임을 가집니다. (인도: 윤경문 목사).

3. 4월 26일: 성경공부 대신, 주일 성경공부 중인 마태복음에 관한 성경 퀴즈 대회와 게임을 Virtual로 하면서 친교를 가졌습니다. (성경퀴즈 우승자: 이준석, 최효영)

II. 청년 2부 수련회 연기

- Covid-19으로 인해 4/24-26 예정되었던 수련회를 취소했습니다.
- 수련회 장소(Grontonwood)의 Deposit (\$600)을 다 돌려받았음.
 - 수련회는 Covid 사태가 끝난 후 추후에 다시 날짜를 잡기로 함.
 - 당분간 수련회를 못가지므로, 대신 5월 24일(주일) House Retreat으로 Zoom을 통해 가질 예정입니다.

II. 섬김 사역 참여

1. 섬김 사역팀에서 주최한 구역과 상록기도회 분들을 위한 Technical support (줌 설치)등에 참여하여 청년들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2. ‘꽃.소.리.(FlowerSori) Hotline” 서비스

- 섬김 Task Force팀과 함께 Covid-19 시기에 연로하신 상록기도회 분들과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이 고립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청년 1, 2부가 나눴습니다.
- 간편하게 전화로 들으실 수 있는 핫 라인을 통한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기술적인 부분들을 청년 2부에서 열심히 알아보아, Telvis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 핫라인 서비스(1-888-520-0539.)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양원제 교우와 최효영 교우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핫라인의 이름을 ‘꽃. 소. 리’(FlowerSori)로 결정하였습니다. (“꽃잎을 날개 삼아 아름다운 소리가 바람과 전화선을 타고 여러분께 희망과 기쁨을 날라 드립니다.” 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
- 핫 라인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의 유머’, ‘오늘의 훈훈한 이야기’, ‘오늘의 초간단 요리’ 항목이며,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청년 1부와 2부가 함께 내용을 준비하고, 녹음하여 올리고 있음.
- 주로 한국어 내용 제공은 청년 2부가, 영어 내용은 청년 1부가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 섬김 사역팀과 협력하여 앞으로 올릴 내용들에 제직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FLOWERSORI
하하하!
오늘 웃으셨나요?
1-888-520-0539

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소소한 기쁨과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회 안의 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전달해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이 사역이 잘 활용이 되면 다른 이민자 그룹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꽃소리 핫라인에 자료 올리는 방법을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1부

1. 온라인 금요 집회 및 주일모임: COVID-19 상황으로 인해, 3월 20일 금요 집회부터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임은 물론, 전화통화, 인터넷 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온라인 행아웃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공동체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제는, 2월 중순부터 성금요일에배 전까지는 [이사야서: 하나님의 종의 노래]와 [마태복음]을 주제로 금요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일모임 때는 [요한복음]으로 전체 또는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정기 총회: 4월 5일(종려주일)에는 임시 총회 (차기 회장단 후보 선출), 4월 12일(부활주일)에는 정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정기 총회를 통해서, 지난 해 7월부터의 청년1부 모임과 활동을 되돌아보고,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차기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2020-2021회기 회장단 - 회장: 안성민, 부회장: 마승은 (임기: 2020년 7월 ~ 2021년 6월)

3. 꽃소리(FlowerSori) 활동 및 “섬김” 프로젝트: COVID-19 상황 속에서, 교회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섬김”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Brookline 지역 청소와 Youth Group 수련회 도우미 등의 활동은 취소되었지만, “꽃소리(FlowerSori)” 프로젝트를 청년2부와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 상황에 맞는 섬김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4. 학기말 일정들: 5/17 (주일) 종강모임으로 봄학기 모임을 마무리하고, 방학 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학기말/여름 초에는 온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년의 “선교를 위한 음식바자회”, “교육2부 야외회”, “청년1부 야외 친교모임” 등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대신할 섬김과 교제의 방법들을 청년들과 함께 계속 연구하고 의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신앙과 공동체성이 계속 성장하는 청년1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요한 목사

부부청년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부청년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부부청년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3월 첫째주부터 부부청년부 off-line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 등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구성원들이 많은 특성 상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아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부청 식구들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격려하였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부부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 저희 부청에서는 다양한 모임들로 매주 부청의 모임들이 다채롭게 채워졌습니다. 먼저 1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부부청년부를 새롭게 찾아주신 김경섭/정문영 가정을 환영하시는 시간과, 지난 2년동안 저희 부부청년부에서 함께 섬기던 민철홍/정지선 가정을 한국으로 환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지내던 지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귀한 지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특별히 저희 부부청년부를 위해 이영길 목사님께서 “어머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윤경문 목사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머니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부청년부를 이 곳으로 보내시고, 지금 이곳 여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Off-line 모임을 갖지 못한 이후로는 zoom을 이용한 online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장님들을 주축으로 조별로 소그룹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이 곳에 적응하고 있는 가정들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 중보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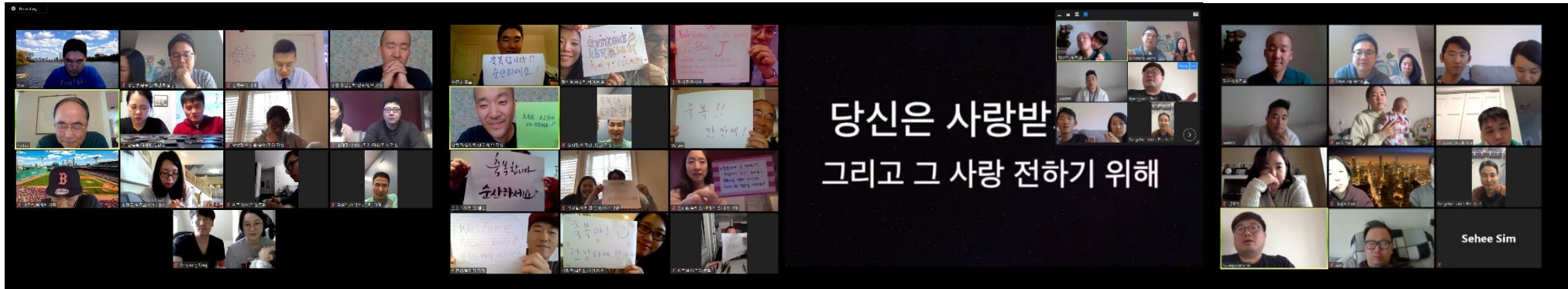
4월 둘째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부부청년부 온라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4월 셋째 주에는 지난 2년 동안 저희 부청에서 함께 섬기던 최경윤 형제님을 한국으로 환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직접 만나 환송회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 모임을 통해 축복하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부부청년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담당 장로님이신 한문수 장로님께서 함께 참석해주셔서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출산 예정이었던 서동현/이정운 가정의 베이비 샤워를 진행하여 원활한 순산과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속에서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동안 저희 부부청년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격려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일상의 삶을 지금은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그리고 그 속의 부부청년부를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청년부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한 부청 부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정신영/황수진 집사



마리아 여선교회

샬롬, 하나님 사랑으로 교인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마리아에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마리아 여선교회는 줌을 이용하여 2주에 한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지역 그리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어려운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 기도 모임은 교회의 모든 여성 여러분께 열려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chemkwak@gmail.com (곽서영 집사)으로 알려주시면 기도모임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 마리아 여선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0년 1월 12일 마리아 신년 임시 총회를 통해 신임원단 및 인준, 새해 예산 및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문 : 이성혜 사모 / 한정인 / 곽서영
회장 : 김희현 / 부회장 : 이성희 /
총무 : 김경태 / 서기 : 이정임 /
회계 : 이소은 / 봉사부장 : 곽서영 /
선교부장 : 노윤경 / 친교부장 : 김연희



2) 2020년 3월 1일 : '세계 여성 기도일 예배'

매년 소외된 나라의 여성을 위해 전 세계에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억압받는 여성들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부청년부에서부터 에스더, 마리아 여선교회와 권사회, 상록회 어르신까지 참석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모인 인원은 45명의 남녀 성도이고 헌금은 \$436로 전액 세계기도일예배 주최측인 '미주 한인교회 여성 연합회'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헌금은 짐바브웨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3) 1부 예배 다과 준비 및 정리

회장 김희현 집사



에스더 여선교회

에스더 임시 총회를 할 때만해도 2020년 새 임원단 선출과 새로운 일년 사역 준비로 행복한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COVID-19가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진행되어질 일년 사역을 내다보며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은 마음의 준비, 시간의 준비, 에너지 준비를 했을테지요~

2020년 에스더 임원진들의 본격적인 사역은 3월부터 시작이기에... 가장 먼저 우리 이영길 목사님 생신 축하해 드리는 시간부터 가졌습니다. 매년 3월엔 목사님을 모시고 생신축하노래를 불러드리고 케이크에 초를 꽂아 드리고 어여쁜 꽃을 선물해 드리는 일이 언제든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주만 지났어도 우리는 목사님 생신을 마음으로만 축하를 드릴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나니 2020년 생신축하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특별했던 것이었습니다.

세계여성기도회가 열리는 날은 주최하시는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부탁해주신 기도문 일부를 읽으며 세계 여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도 알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있던 주일부터 COVID-19으로 인해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예배를 위해 매주 2부 예배가 마치면 본당 피아노 옆에 모여 열심히 특송을 준비했던 에스더 자매님들... 연습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2020년 에스더 여선교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열심히 잘 섬기고자 하는 바람이었음을...

비록 헌신예배 특송으로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연습했던 날들을 사진으로 잘 담아 (교회 사이트에 가시면 영상으로도 올려져 있습니다) 한울타리에 원고에서나마 전해드립니다.

매년 4,5월이면 당연히 준비했던 부활절과 교회 대청소, 어머니 주일 꽃 달아드리기 등의 많은 행사가 2020년도는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봄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해 행사와 사역은 내년을 기대하고 기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간들 보내시고 곧 교회에서 뵈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장 최수경 집사
보고 정은아 집사



남선교회

저희를 남선교회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더욱 그곳에 녹아들어가 봉사하려고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로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 1월26일 2부 예배 후에 전교인 “설맞이 웃놀이”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3년 만에 개최하였으며, 또한 제기차기를 남녀노소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사회와 임원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전 교인에게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집사님들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모는 모든 분들이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가셨습니다.

2월3~4일, 한국 기독교학생들이 한국에서 미국 여행 중 보스턴을 방문하여 이유택 장로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으며, 이영길 목사님, 최학수 외 많은 집사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미주 방문 대학생들에게 보스턴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PCUSA 미국과 한국 대학생 또는 우리 자녀들이 매년 오고 가며 신앙도 돈독히 하고 한국 또는 미국을 여행할 때 교회의 남선교회에서 그들의 일정을 돕고 있는 Program입니다.

2월16일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때 모든 교인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휘 최현구 집사, 반주 김영순/안은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올해 남선교회를 섬기실 임원
회장: 이정규 장로 부회장: 김준구 집사
서기: 안명훈 집사 회계: 정재원 집사.

회장 이정규 장로



권사회

Corona-19으로 인한 Social-Distance 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난 3월22일 부터 On-Line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사소한 일상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권사회에서는 지난 3월1일 (해바라기 유초등부) 교사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였고, 어려운 중에도 생일을 맞는 분들에게는 생일축하카드를 잊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이 고비를 잘 이겨 나가시도록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그로 인해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지난 4월9일 고 이숙재 권사님(이혜원 집사님 모친) 께서 소천하셨고, 추후 상황이 호전되면 추모예배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4월30일에는 고 박연교 권사님(강상철 장로님 모친) 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5월4일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두분 모두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유가족과 목사님 외 몇몇분만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어 애석함을 금할 수 없습디다만, 그분들이 생전에 보여주시고 남겨 주신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는 언제나 지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분의 유가족들에게 남겨진 깊은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장 서명숙 권사



상록기도회

- 3월 8일 상록회 회장에 이재명 집사로 위임
- 상록기도회 회원들에게는 임원들이 간간히 전화하며 소통을 합니다
- 예배는 청년부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 4월 9일 이숙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예배는 가족과 소수의 교인들로 행하여 지고 추모 예배는 코로나가 지난 후 추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 4월 30일 그동안 양로원에 계시던 박연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시 상황으로 가족끼리 입관예배 드리고 차후에 추모예배 예정입니다.
- 아래 사진들은 성탄절때 털모자 선물을 받으시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고 이숙재 권사님을 추모하며 모은 모습들입니다.

회장 이재명 집사

